“어르신들이 무주의 경쟁력”

황인홍 무주군수, 노인대학 특강 진행

무주군 노인대학 특강이 21일 무주읍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강사로 나섰던 이날 특강은 어르신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1백여 명이 참석해 ‘100세 시대 건강하게’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무주군의 상황과 대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는 “젊은 시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연세 드셔서도 늘 열심히 사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배우고 또 다짐을 하게 된다”라며 “우리 어르신들이 여생을 건강하고 보람 있게, 또 당당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노인대학 특강이 21일 무주읍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어 무주군 노인복지 현황과 민선 7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또 달라지는 복지제도, 노인일자리와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 등을 설명하며 “100세 시대에 중요한 건 늘어나는 수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질”임을 강조했다.

황 군수는 “우리 어르신들이 무주의 경쟁력으로서 여전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부분을 충족시켜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일자리 부분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 노인대학(1년 과정)은 어르신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부터 개설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양, 건강, 지식습득, 시사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사회복지심부름센터 민원해결사 역할 톡톡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지원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에서 운영하는 장수군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심부름서비스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2월에 문을 연 장수군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각종 민원신청 대행,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 도움,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심부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심부름센터에서는 모두 1000여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심부름 외에도 251명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들이기, 독거노인 100가정에 태양광조명등 설치를 장수군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복지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역사회 내에서 숨은 일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ㄴ

심부름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063-784-7070)로 신청하면 수행 인력이 방문해 도움을 준다.

김진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단순 심부름 해결로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사례관리와 지역의 자원 연계까지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며 “정형적이고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상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진안군 상전면(면장 송준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21일 상전면 주민사랑방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지사협은 회의에서 올해 1월 붙 10월까지 추진한 서비스연계실적 보고와 함께 2020년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지사협 활성화방안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이한 만큼 상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숨어있는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송준섭 공공위원장은 “의식주 해결은 물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맞춤형 보장을 위해 민관이 협심하여 모두가 행복한 상전면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7회 사랑나눔 먹거리장터가 21일 무주군청 차 쉼터에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제17회 사랑나눔 먹거리장터 성황

무주 기부의 날, 모금액 이웃돕기에 사용 계획

2019 무주 기부의 날, 제17회 사랑나눔 먹거리장터가 21일 무주군청 차 쉼터에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SSN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 · 사회단체장들과 주민 등 5백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정오부터 시작된 행사는 먹거리장터(한우국밥, 시래기국 등)와 기부물품(새우젓, 와인, 꿀 등 50여 점)판매 등의 ‘나눔마당’과 자원봉사, 성금모금 · 후원금, 구매티켓 기부 등의 ‘감동마당’, 그리고 ‘여우소리’와 ‘통기타라’ 등 주민 통기타 동아리 2팀의 재능기부 문화공연 등의 ‘문화마당’, 아나바다장터와 애장품기증 ·판매 등의 ‘특별마당’으로 진행돼 성황을 이뤘다. 주민 이 모 씨(52세, 적상면)는 “장날이라 나왔다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들러봤다”라며 “1만 원 티켓을 사면 3천 원이 자동 기부된다고 들었는데 이웃도 돕고 점심도 먹고 흐뭇하다”라고 전했다.

SSN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25,246,980원으로 전액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주민들의 집수리와 긴급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집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정천면, 화재예방 합동소방훈련

진안군 정천면(면장 이명진)은 최근 무진장 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정천면청사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정천면사무소 화재 시 신속한 초기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된 이날 훈련은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인명구호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정천면사무소 2층 숙직실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화재신고·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지 등 훈련이 실전처럼 펼쳐졌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진안 119안전센터 관계자의 훈련 강평과 소형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과 함께 직원들의 시연이 이어졌다.

정천면 합동소방훈련은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명진 면장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진압 대피훈련을 통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해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문)에서는 11월21일부터 전 부서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 동안 서류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2019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종문 의장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2019년 한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군정을 내실있게 준비해 줄 것과, 어려운 이웃과, 화재위험지역, 상수도 동파 등 각종 월동대책을 사전에 두루 살펴 전 군민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설천면청년회 농약공병 수거

무주군 설천면청년회(회장 배준)가 농약공병 수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약공병 수거는 설천면청년회가 청정 무주 만들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7일부터 회원 20여 명이 동참해 현재까지 설천면 일원에서 농약 공병 2만 2천여 개를 수거했다

배준 회장은 “논, 밭두렁, 하천 등에 버려지는 농약 공병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동시에 자연경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청년회에서는 98년도부터 22년 간 일 년에 두 번 씩 매년 4만개 이상의 농약 공병을 수거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회원들이 활동을 자처한 건 공병 수거의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과 농약 공병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며 “판매수익금과 설천면발전회 지원금을 활용해 주민들이 공병을 가져오면 개 당 100원 씩 돌려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설천면청년회원들은 설천면 지역에 거주하는 25~45세까지의 청년들로 농약공병 수거 외에도 매년 4월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과 9월에는 천변 예초작업을,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7월과 8월에는 설천면 체육회, 방범대와 함께 주요 관광지 관리와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 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